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럽바이블 대본집

Ep.001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1~25)

아주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높다란 빌딩 숲이나 키즈카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 빛나는 태양조차 없던 세상이었죠.

그때의 세상은 온통 물로 덮여 있었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다만 세상에는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죠.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생겨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비치는 시간을 '낮'이라 부르셨고,
빛이 사라진 시간을 '밤'이라 부르셨죠.

둘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날은 뭐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늘이었어요!

세상을 뒤엎고 있던 물을 반으로 나눠서 위쪽에 하늘을 만드신거죠.
하늘에는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구름도 띄워놓으셨답니다!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미세먼지 가득한
회색빛 하늘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늘은
티없이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셋째 날이 되었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부분이 드러나거라."

물에 발이라도 달린 걸까요? 순식간에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자 물이 없어진 부분에 마른 공간이 생겨났죠.

그래서 물이 모여든 부분은 '바다', 마른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된 거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온 땅이 벌거숭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땅 위에 뭐부터 만들었을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만드셨어요.

"음. 여기에는 풀도 만들고, 여기다가는 꽃도 피게 하고.
옳거니! 여기에는 과일을 맺는 나무들을 심어놔야겠구나.
하하하하!"

지금 우리가 보는 푸른 잔디, 장미와 튤립, 수박,포도, 바나나 같은
과일들이 다 이 날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매우 좋아하셨죠.

넷째 날이 되었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시는 날이었죠.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들이
뚝딱뚝딱 생겨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사계절이 완성된 것도
태양이 만들어진 바로 이 때부터였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 만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이 없으니 영 심심하구나.
오늘부터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들어봐야겠다."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에 온갖 생명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다에서는 큰 고래가 물을 뿜었고
날치 떼들이 파다닥파다닥 물 위로 튀어올랐죠.

참새, 비둘기, 딱따구리, 부엉이, 앵무새
우리가 아는 모든 새들도
이 날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늘과 바다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돌아다녔지만 여전히 텅 비어있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은 온갖 생물들을 내어 놓거라.
기어다니는 것들, 네 발로 다니는 것들, 나무를 타는 것들,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내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만들 것이니라.”

그러자 세상이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어요!

여태껏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세상엔 활기가 가득 넘쳤죠.
우리가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면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몹시 흡족해하셨어요.

"허허허허! 좋구나 아주 좋아!
내가 만들었지만 계획대로 아주 잘 나왔어! 하하하하하!"

새하얀 도화지 같던 세상이
알록달록한 빛깔과 수많은 생명체들로 채워졌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여러분도 눈치챘나요?

맞아요! 아직 세상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어린 아이도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건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 만드는 걸 아껴두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